

# 한국 고등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과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이홍직\* · 김광선\*\* · 김광희\*\* · 남길우\*\* ·  
민경원\*\* · 이삼순\*\* · 정찬희\*\* · 이현숙\*\*\* · 박지현\*\*\*\*

Factors that Affect the Suicidal Though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Hong-Jik Lee\* · Kwang-Sun Kim\*\* · Kwang-Hoi Kim\*\* · Gil-Woo Nam\*\* ·  
Kyeong-Won Min\*\* · Sam-Soon Lee\*\* · Chan-Hee Jeong\*\* · Hyun-Sook Lee\*\*\* · Ji-Hyun Park\*\*\*\*

## 요 약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통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과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제시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중에서는 여학생의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 학생인 경우에, 저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일탈행동 요인 중에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 성향을 지닌 경우에, 흡연하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예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ffect the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35,668 senior high school student cases of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it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Being female, living without parents, low economic status, poor academic record, technical school students, young students, poor academic record, internet addiction, problem drinking, smoking cigarettes and experience of drug use significantly increased probability of their suicidal thoughts. Findings may be used for tackle the issues of suicidal thoughts among the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 키워드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Though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linquent Behaviors  
고등학생, 자살생각, 인구사회학적특성, 일탈행동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e@kangnam.ac.kr)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jihyunpark99@naver.com)

접수일자 : 2013. 04. 23

심사(수정)일자 : 2013. 06. 24

게재확정일자 : 2013. 07. 23

## 1. 서론

2010년 기준 한국의 사망원인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대에서 30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뿐만아니라, 2009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표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기 충분하며, 이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학계에서도 청소년 자살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현격한 전환기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일탈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 중 가장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이들의 자살생각이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규명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간 선행된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대상 자살 관련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 학교 특성, 가족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지지 등의 다양한 요인을 자살의 예측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1],[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흡연, 약물, 음주 등의 일탈행동과 자살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공히 제한적이다. 특히, 정보화 수준이 우수한 국내의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작업도 청소년의 자살 예방책 마련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물론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약물사용경험 등의 일탈행동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과 일탈행동 요인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09년도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 중 고등학생 자료의 일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탈행동 등의 질문을 담고 있으며,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생을 각각 일정부분 조사대상으로 초대하였으며, 비교적 지역과 학년별 고른 표본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2005년도 이래로 매해 16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73,238명을 표본을 선정하여 수집된 자료로, 2009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5,668명의 고등학생이 응답하여, 이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를 활용, 고등학생의 자살생각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2.3.1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원시 자료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 2.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추출한 성별, 부모와의 동거형태, 가계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양부모와의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6개 학년으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3.3 일탈행동 요인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는 일탈행위와 관련 인터넷 중독, 흡연, 음주, 약물사용경험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은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각 4점 척도로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중독으로 조작화하였다.

문제음주는 최근 12개월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홀로 음주, 절주 충고를 들은 경험, 음주 후 운전 또는 음주자와의 동승, 음주 후 기억 끊김, 음주 후 시비 여부 등 6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문제음주로 조작화하였다[3].

흡연은 최근 30일동안 흡연여부와 술 1잔 이상을 마신 경우를 흡연과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약물사용 경험은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의 여부를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Delinquent factor	Internet addiction	0 = No 1 = Yes
	Problem drinking	0 = No 1 = Yes
	Smoking	0 = No 1 = Yes
	Drug uses	0 = No 1 = Yes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을 통해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일탈행동요인, 자살생각 등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측정하였다. 둘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각 독립변수들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Measure	Factor	Variables	Classification	
Dependent measure	Suicidal thoughts	Suicidal thoughts	0 = No	
			1 = Yes	
	Gender	Gender	0 = Female	
			1 = Male	
	Living w/ parents	Living w/ parents	0 = No	
			1 = Yes	
	Economic status	Economic status	1 = Low	
			2 = Midd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ype of school	3 = High	
			1 = Nonprofessional	
	Independent measure	Socio-demographic factor	Type of school	2 = Professional
				Grade
2 = 2nd grade				
3 = 3rd grade				
Academic record		Academic record	1 = Low	
			2 = Middle	
	3 = High			

III.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Factor	Variable	Category	Frequency(%)
Gender	Gender	Female	17,233(48.32)
		Male	18,435(51.68)
Living w/ parents	Living w/ parents	No	4,818(13.67)
		Yes	30,419(86.3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status	Low	10,384(29.11)
		Middle	16,855(47.26)
		High	8,429(23.63)
Socio-demographic factor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26,845(75.26)
		Professional	8,823(24.74)
	Grade	1st grade	12,021(33.70)
		2nd grade	12,124(33.99)
		3rd grade	11,523(32.31)

Delinquent factor	Academic record	Low	13,530(37.93)
		Middle	10,388(29.12)
		High	11,750(32.94)
	Internet addiction	No	32,873(92.16)
		Yes	2,795(7.84)
	Problem drinking	No	30,947(86.76)
		Yes	4,721(13.24)
	Smoking	No	29,759(83.43)
		Yes	5,909(16.57)
	Drug uses	No	35,049(98.26)
Yes		619(1.74)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51.68%로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86.33%가 양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중이 47.26%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에 있어서는 고 2학년생이 33.99%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하(37.93%)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는 7.84%가 중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13.24가 문제음주 증상을 보였으며, 흡연에 있어서는 16.57%가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에 있어서는 1.74%만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자살생각 빈도

본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18.92%(6,747명)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살생각  
Table 3. Frequency of suicidal thought

Variable	Category	Frequency(%)
Suicidal thoughts	No	28,921(81.08)
	Yes	6,747(18.92)

### 3.3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살생각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여부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chi^2=374.41$ ,  $p<.001$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chi^2=64.07$ ,

$p<.001$ ),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chi^2=337.71$ ,  $p<.001$ ), 전문계학생인 경우에( $\chi^2=9.82$ ,  $p<.01$ ), 1학년 학생이( $\chi^2=10.70$ ,  $p<.01$ ), 학업 성적이 낮은 경우에( $\chi^2=210.64$ ,  $p<.001$ )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있는 경우에( $\chi^2=200.27$ ,  $p<.001$ ), 문제음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chi^2=522.55$ ,  $p<.001$ ), 흡연을 하는 경우에( $\chi^2=292.44$ ,  $p<.001$ ),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chi^2=178.12$ ,  $p<.001$ )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5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일탈행동 요인들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여학생일수록 (OR=.51,  $p<.001$ ),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OR=.84,  $p<.001$ ),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OR=.81,  $p<.001$ ), 전문계 학생인 경우에 (OR=.81,  $p<.001$ ), 저학년일수록 (OR=.91,  $p<.01$ ), 학업성적이 저조할수록 (OR=.91,  $p<.001$ ), 일탈행동 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OR=1.94,  $p<.001$ ), 문제음주 성향을 지닌 경우에 (OR=1.83,  $p<.001$ ), 흡연하는 경우에 (OR=1.52,  $p<.001$ ),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OR=2.40,  $p<.001$ )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로지스틱회귀모형에 투입한 예측요인들의 자살생각 설명력은 5.0%(pseduo R<sup>2</sup>) 정도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suicidal thoughts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Variable	Category	Suicidal thoughts(%)		$\chi^2$	p
			No	Yes		
Gender		Female	13,258(76.93)	3,975(23.07)	374.41	***
		Male	15,663(84.96)	2,772(15.0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Living w/ parents	No	3,706(76.92)	1,112(23.08)	64.07	***
		Yes	24,876(81.78)	5,543(18.22)		
Economic status		Low	7,806(75.17)	2,578(24.83)	337.71	***
		Middle	14,135(83.86)	2,720(16.14)		
		High	6,980(82.81)	1,449(17.19)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21,867(81.46)	4,978(18.54)	9.82	**
	Professional	7,054(79.95)	1,769(20.05)		
Grade	1st grade	9,658(80.34)	2,363(19.66)	10.70	**
	2nd grade	9,938(81.97)	2,186(18.03)		
	3rd grade	9,325(80.93)	2,198(19.07)		
Academic record	Low	10,450(77.24)	3,080(22.76)	210.64	***
	Middle	8,655(83.32)	1,733(16.68)		
	High	9,816(83.54)	1,934(16.46)		
Internet addiction	No	26,936(81.94)	5,937(18.06)	200.27	***
	Yes	1,985(71.02)	810(28.98)		
Problem drinking	No	25,666(82.94)	5,281(17.06)	522.55	***
	Yes	3,255(68.95)	1,466(31.05)		
Smoking	No	24,600(82.66)	5,159(17.34)	292.44	***
	Yes	4,321(73.13)	1,588(26.87)		
Drug uses	No	28,546(81.45)	6,501(18.55)	178.12	***
	Yes	373(60.26)	246(39.74)		

\*\*p<.01, \*\*\*p<.001

#### IV. 논 의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 사회학적 특성요인과 일탈요인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정리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문계, 저학년인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건강 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주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Determinants of suicidal thoughts

Variable	Odd Ratio	SE	95% CI
Socio-demographic			
Gender(male)	0.51	0.01	(0.48, 0.54)***

characteristics, factor	Living w/ parents	0.84	0.03	(0.78, 0.91)***
	Economic status	0.81	0.02	(0.78, 0.84)***
	Type of school	0.86	0.03	(0.80, 0.91)***
	Grade	0.94	0.02	(0.91, 0.98)**
Delinquent factor	Academic record	0.91	0.02	(0.88, 0.94)***
	Internet addiction	1.94	0.09	(1.77, 2.12)***
	Problem drinking	1.83	0.08	(1.69, 1.98)***
	Smoking	1.52	0.06	(1.40, 1.65)***
Delinquent factor	Drug uses	2.40	0.22	(2.01, 2.87)***
	Constant	0.60	0.04	(0.53, 0.69)***
	LR Chi-square	1548.10		
	Pseudo R-square	0.05		

\*p<.05, \*\*p<.01, \*\*\*p<.00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여학생의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 학생인 경우에, 저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남학생보다 자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여학생들에 대해 그들의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노력이 이들의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 부모와의 동거와 적극적인 관심도 이들의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경제수준이 낮거나, 전문계 학생인 경우에, 학년이 낮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저조한 고등학생이 자살생각의 위험군으로 제시되었다. 즉, 고등학생의 가계 경제 수준이나 학업성적, 학년, 관심영역에 관계없이 이들이 다양한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이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일탈행동 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 성향을 지닌 경우에, 흡연하는 경우에, 약물

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에게도 있어서 인터넷 중독, 문제음주, 흡연, 약물사용이 다양한 여타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의 전조로 이러한 일탈행동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일탈행동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하리라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과 일탈요인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 학생인 경우에, 저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 성향을 지닌 경우에, 흡연하는 경우에,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문헌

- [1] Lee, H.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0, No. 3, pp. 139-148, 2012.
- [2] Park, T. Jung, M. Jung, S. Park, H. Han, C. Hong, S. You, S. & Moon, K.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pp. 505-515, 2013.
- [3]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291-299, 2013.
- [4] Jin, H. & Bae, S.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2, pp. 193-221, 2012.
- [5] Kim, D. Kim, Y. Kim, S. Jang, Y. Jang, M. & Park,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937-944, 2012.
- [6] Shim, J. Seoung, J. Lee, M. Song, S.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81-190, 2013.
- [7] Kim, S.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2, 2013.
- [8]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Problem-Drinking Behavior among Korea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8, No. 1, pp.33-44, 2013.
- [9] Kim, K, Ryu, E., Chon, MY, Yeun, EJ, Choi, SY, Seo, JS, & Nam, BW.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3, pp. 185-192, 2006.
- [10] Hong, Y. & Jeon, S.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Vol. 19, No. 4, pp. 125-149, 2005.
- [11] Jang, S. & Lee, M.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8, pp. 27-55, 2010.
- [12] Kang, E. Song, Y. Cho, H. & Kang, S. "Relationship of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piritual well-being of adolescence", Holistic Nursing Science Institute, Academic Collections. Vol. 13, No.2, pp. 93-111, 2003.
- [13] Ko, J. & Yun, K.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 Youth, Vol. 18, No. 1, pp. 185-212, 2007.
- [14] Lee, H. Shin, H. & Lee, K.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4,

No. 1, pp. 49-21, 2006.

- [15] Lee, M. & Kim, S. Park, J. & Sim, E.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cial relationships and famil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2, pp. 61-84, 2010.
- [16] Lim, S. "The effects of attribution style in controlling for the relations between stressors, suicidal-ideation and aggression: implications to counseling on adolescents' problem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5, No. 1, pp. 105-118, 2007.
- [17] Moon, K. & Im, K. "Extinction, formation, and duration of suicidal impul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tate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3, pp. 665-683, 2007.
- [18] Noh, H. & Choi, K. "The effect of body image upon youths with suicide idea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nse of depression", Studies on Korea Youth, Vol. 20, No. 3, pp. 141-165, 2009.
- [19] Park, K. Oh, K. & Shin, M.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No. 1, pp. 286-297, 1991.
- [20] Park, J. & Moon, J.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27, pp. 105-131, 2010.
- [21] Yook, S. "Understanding of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15, No. 2, pp. 107-111, 2007.
- [22] Shin, S. & Cho, Y. "Social capital and suicidal impuls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4, No. 3, pp. 35-49, 2007.
- [23] Park, Y. "The influences of school-related stress, conflicts with parents, and conflicts with friends on suicidal ideation of Korean adolescents: center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Stress Research. Vol. 17, No. 4, pp. 389-398, 2009.

저자 소개

**이홍직(Hong-Jik Lee)**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복지, 사회복지 디지털 콘텐츠

**김광선(Kwang-Sun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콘텐츠

**김광희(Kwang-Hoi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콘텐츠

**남길우(Gil-Woo Na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신문팀장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콘텐츠



**민경원(Kyeong-Won Min)**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삼순(Sam-Soon Lee)**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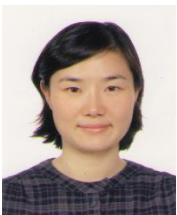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정찬희(Chan-Hee Jeong)**

1995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현숙(Hyun-Sook Lee)**

2011년 University of Edinburgh 졸업.  
사회정책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박지현(Ji-Hyun Park)**

2011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졸업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원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